

일주문

동산반야회 유미경 설법
무진장 전 조계종 포교원
장은 11일 동산교역관 2층
에서 열린 동산반야회 창립
18주년 기념대법회에서 '유
마경'을 주제로 설법했다.

명원치문화대상 수상
성우 불교텔레비전 회장스
님(사진 위)은 15일 서울 하
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
린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
의상) 주최의 명원 차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상을
수상했다.

김기원 진주 산업대 교수
(사진 아래)는 학술상을, 정
광도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은 공로상을 각각 수상했
다.

'전집 10권' 출판기념회
정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은 22일 오후 5시 한국일보
13층 송현빌딩에서 '정휴스
님 전집(전10권)' 출판기념
회를 연다.

달서분원 고승초청법회
실상 대구 법당사 주지는
16~22일 7일동안 달서분
원에서 7인 큰스님 초청
법회를 연다. (053)766-
3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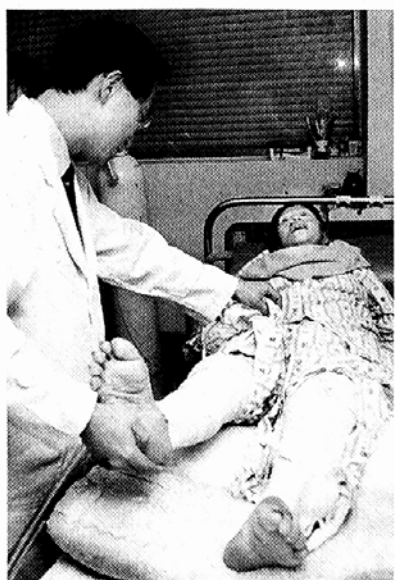
점자책 기금미련 하루치집
덕신 서울 조계사 원심회
장은 19일 '시각장애인을 위
한 한글대장경 점자책 발행
기금미련을 위한 하루치집'
을 열었다.

한국미술발전연구소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
장(경기도 석좌교수)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극장 옆 종전
빌딩 402호에 '한국미술발전
연구소'를 열었다.

대승사 대웅전 낙성식
리선형 강원도 황성 대승
사 회주는 26일 오전 11시
대웅전 낙성식 및 석가모니
불 점안법회를 연다. (033)
345-7666

종교사회복지포럼 세미나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은 18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제1회 종교사회복지포럼
세미나 및 '현대불교 사회복지
지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WFBY총회 참석차 출국
이치란 WFBY 한국본부 회
장은 태국 방콕에서 12월 6일
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2차
WFBY 총회에 참석키 위해
12월 5일 출국한다.



본사-동인천 길병원 공동실시

관절염 무료수술 받은 김원순씨

"아프지 않고 견게 돼 감사"

현대불교신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동인천길병원(원장 이수찬)과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퇴행성관절염 무료 의료지원사업에서 경
기 광주군에 사는 김원순(75)씨가 11일 양쪽 무
릎관절수술을 받았다.

김씨의 수술은 능인선원 신도인 딸 박경숙
(53)씨가 본사에 딱한 사정을 호소해오면서 이
뤄졌으며, 올해 의료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됐
다. 수술은 이수찬 원장의 집도로 이뤄졌다.

30년 전부터 관절염을 앓아 온 김씨는 양 무
릎의 연골이 닳아 없어져 최근에는 걸음조차 제
대로 걸지 못할 정도였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
로 지금까지 약 한 번 변변히 써보지 못했다.

"김씨는 연골이 녹아 없어져 뼈가 뼈를 꺾는
심각한 상태라서 무릎인공관절을 시술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고통이 심했는데 병원 한 번
못 가겠다는 얘기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수술 3일 뒤인 14일 기자의 만난 김씨와 딸
박씨는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
물을 감추지 못했다. 23살에 남편을 여의고 75
년 말까지 출가한 뒤 25년을 홀로 살아 온 김씨
는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12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늘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도 병원에도 못
가본 한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풀었으
니 더 이상 무얼 바라겠습니까. 더구나 수술비
와 병원비가 5백만 원이 넘는다는데..."

딸 박씨의 말에 김씨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
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본사와 공동으로 가정형편이 어
려운 관절염 환자 8명을 무료수술해준 동인천
길병원의 이수찬 원장(40)은 퇴행성관절염 분
아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퇴행성관절염이 육체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
람들에게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도
대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면 기꺼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nia.com)

"고통받는 이 없는 불국토 만들자"

창립 10돌 맞은 불교인권위

대표 진관스님

"조계종이여 그대는 화합위해 나
투게 하라 / 누구든지 부처님 가르
침으로 역사와 민족 앞에 / 부끄러
움 없는 부처님 여래 사도 되게 하
자 /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눈물이 되게 하자."

불교지와 다름없던 불교 인권운동
에 헌신해 온 진관(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스님은 20일 불교인권위원
회 창립 10돌을 맞은 감회를 이런 시로
노래했다. 불교인권위는 10주년기념으
로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고승 선사
화전, 인권상 시상식, 민족민주역사
천도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지난 90년 11월 20일 불교인권위
원회를 창립한 후 10년을 하루같이
'사람의 살 권리'를 옹호해 온 스님
은 통일·인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단 화합과 중생제도의
인력을 새로이 정립하는 일이 선행
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이 최근
교통사고로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
'종단화합 발전을 위한 승려 사면
복귀 서명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진관 스님은 "인권위 창립 10돌을
계기로 북한 통포의 인권 보호와
통일운동에 더욱 관심을 가질 계
회"이라며,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



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우리 민족
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
자리인 나눔의 집을 건립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한 스
님은 "인권·통일·환경 운동을 의
념해 온 스님·불자들이 그러한 운
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때만이
합체기의 불교 인권운동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63년 15세의 나이로 금산사에
입산, 68년 자운 화상으로부터 비구
계를 수지한 이래 진관 스님은 4.19
학생운동, 불교법난에 저항, 광주민
주화운동,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사형제 폐지운동 등 민주화·인
권·통일운동에 헌신해 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육지장사 노인 1천명 경로잔치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는 10일 양주 관내 125개
경로당 노인 1천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삼보사
분원 육지장사 지장만일 결사기도 입재를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개그맨 최영준씨의 사회로 명곡환, 한명숙, 송춘희,
장미화씨 등 불자 가수들의 공연과 삼보사 합창단과 무용단
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도봉서 경승법당 부처님 점안식

도봉경찰서 경승실(실장 원종)은 11일 경승법당 부처님 점
안식 및 경찰의 날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
고승 승정 법암,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 경찰청 경승담당 자
우, 승가대총동문회장 원종 스님과 도봉경찰서 김도식 서장,
고광선 법우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四溟大師와 護國佛敎의 理念



사명대사연구 학술대회

사명대사연구는총간행위원회와 토론회(회장 김무조)는 11
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향토정신사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사
명대사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육원선원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사명대사와 호국불교의 이념'으로 이
진우 부산대 교수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장학습 및 봉사활동

2000년 11월 12일(일요일) 장소: 속리산 국립공원
: 불교자자원봉사연합회(723-6258-91)
: 불교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12일 속리산 국립공원에
서 자원봉사연합회 사무국장 선재스님을 비롯해 '그린오너
119 봉사단'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숲의 생명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
진 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다.

천태종 스님 등 9명 북한 방문

20~25일 영통사지 복원 등 논의



◇덕수 스님



◇김상현 교수

천태종 박덕수 총무부장, 남궁도재 재무
부장, 김경천 교무국장, 김세운 외전국장
장승재 사회국장 스님, 김유혁 중앙신도회
장, 최홍준 부회장, 동국대 김상현·김동현
교수 등 9명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
위원회(위원장 박태하)의 초청으로 20일부
터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
천태종 방문단 일행은 20일 서울을 출발
북경에서 하루를 머문 뒤 21일 평양에 들
어가 25일까지 영통사지 등 북한의 불교
유적 및 사찰을 참배한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천태종 방문단은 북한당국과 대각사
의천스님의 출가·열반지인 영통사지
복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할 전망이
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nia.com)



◇남궁도재 스님



◇김유혁 회장

삼론종 대신 종정 입적

삼론종 종정 대신단 해봉 스님이 7일
충주 우암정사에서 입적, 11일 오전 우
암정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예도하
는 가운데 영결식이 봉행됐다. 법랍 65
세, 세랍 83세.

1941년 원각사에서 영하순관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대신 스님은 45년 정암사
강원에서 사교과를 수료하고 해동 역경



스님의 법구는 11일 오후 청통사지 대비
장으로 옮겨져 대비식이 봉행됐다.

원에서 대교과를 마
쳤다. 육원암 정방사
원각사 한산사 주지
와 천태종 감사원장
고시원장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
난 89년 대한불교
삼론종을 창종했다.
삼론종을 창종한 스
님의 법구는 11일 오후 청통사지 대비
장으로 옮겨져 대비식이 봉행됐다.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모 집 내 용】

불교 진각종에서는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회 출범과 사단
법인 비로자나 청소
년 협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가. 회당 100주년 기념사업회 전담직 종무원 : 남자 약간명
나. 통리원 전담직 종무원 : 남자 약간명
다.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 직원 : 남자, 여자약간명
2.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3. 자 격 : 제한 없음
4.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5. 접수 및 접수처 : 우편 또는 직접 접수
가. 회당 100주년 기념사업회, 통리원 전담직 종무원
→ 통리원 총무부(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
나.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
→ 사단법인 중앙사무국(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
6. 문 의
가. 전 화 : (02)913-0751~4
(총무부 교환 122,123,125 / 사단법인 교환 173,174)
나. 팩 스 : (02)913-0755



2000 겨울 선 수련회

삼매체험 - 재가·출가 - 선 수행

내가 달라지면 온 세상이 편안하다. 내가 쓰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사는 세상이 극락으로도, 지옥으로도 바뀐다.
내가 쓰고 있는 내 마음을 살피면 금강석보다 더 견고한 고통과 원한 장애를 등 삼매가 연기같이 녹아서 사라진다.
울 겨울에는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자.

- 1. 대상 및 인원 : 일반인 직장인 주부 청년 대학생 스님 70명
2. 수업일정(4박 5일) - 1차 : 12월 23일 - 27일,
2차 : 12월 30일 - 1월 3일
3. 접수 : 12월 10일까지.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 이용자는
팩스로 속히 신청 바람.
◆ 항공사 예약전화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4. 회비 없음 - 재가자
(또 있는 한 분 한 분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 수련이 이루어지게 됨)
▶ 출가자는 회비 또는 일정기간 소임 봉사
후원 1구차 10만원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음)
온라인 - 농협 953-17-000706, 우체국 510016-01-000548
예금주 : 원명선원
5. 신청 및 서류
[1] 일반인 1.성명(한글,한자) 2.주소(지역,직장)
3.전화(지역, 직장, 휴대전화) 4.종교 5.주민등록번호
6.직업-학교(과)명 7.참가동기 8.수련회 참가 유 무
(유 경험자는 순서별, 먼저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
1~9 항목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접수 안됨
[2] 스님 1.법명(한글,한자) 2.재적사(주소 및 사찰 전화,
휴대전화) 3.승려증서본 4.수행경력 5.참가동기
6.원하는 차수(팩스 보낸후 반드시 전화해 내용 파악함 것)
6. 자원봉사신청과 내용 : 매 차수별 5명내외
7.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방한복,
간편한 신발, 작업용 장갑
8. 일상수행내용
수행종목인, 법문, 정감단체 또는 개별정감)
행선 20-30분, 좌선 10-15분, 예불, 선문독송, 요가, 율령
9. 특강 : 원명선원 선 수련 법회에서는 타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수행을 체득하여 가정과 직장 사회 몸이 있는 어디에서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혜를 익힐 수 있다.
누구나 본 수련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아 실천하면 무상삼매를
체험할 수 있으며, 먼저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치한 생활의 속박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생활을 이루어갈
것이다.
10. 문의시간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전화를 해주세요(월-금)
▶ 일요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은 통화를 하지 않음.
11. 기타
수행법침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면 즉시 퇴장, 퇴방 시킴
12. 접수처
제주시 화북동 한라산 조계종 무차법회 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
전화 064-755-3322 전송 064-755-0880



무차도량 한라산 원명선원